

자료소개

청주 신중엄 신도비

강민식*

I. 머리말

III. 번역문

II. 관독문

IV. 맺음말

I. 머리말

조선 중기의 문신 申仲淹(1522~1604)의 신도비이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관정리 430-1번지, 묘소 입구에 있다. 신도비는 정면 1칸, 측면 1칸 비각 안에 있다. 신도비문은 沈喜壽(1548~1622)가 짓고, 李山賚가 썼다. 篆額은 呂爾徵(1588~1656)이 썼다. 글씨는 해서로, 비문 상단 전액은 「贈左贊成申公神道碑銘」이다. 1655년(효종 6)에 세웠다.

신도비문을 지은 심희수의 자는 伯懼, 호는 一松·水雷累人, 본관은 靑松이다. 심희수가 신도비문을 찬한 이유는 건립을 주도한 申湜(1551~1623)과는 40년 친구이며, 여러 차례 신중엄의 壽筵에 참여한 인연이었다.

신도비는 이수와 비신, 하대석으로 나뉘는데, 이수와 비신은 대리석이고 하대석은 화강암이다. 이수는 앞뒤 두 마리의 용이 화염 보주를

* 충북대학교박물관 선임연구원

다투는 모습이고 구름무늬로 공간을 채웠다. 비신은 풍화가 심하나 몇 글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읽을 수 있다.

신도비는 전체 높이 260.9cm이다. 이수는 높이 73cm, 너비 88cm, 두께 33cm이다. 비신은 높이 147.9cm, 너비 71.8cm, 두께 24.2cm로 비문은 앞뒤로 새겨져 있다. 하대석은 네모꼴로 높이 40cm, 너비 35.5cm, 두께 84.5cm 크기이다.

신증엄의 본관은 高靈, 자는 希范이다. 고조는 보한재 申叔舟(1417~1475), 증조는 靈城君 申澗, 할아버지는 申光潤, 아버지는 申澈, 어머니는 진주강씨와 전주이씨이다.

고령신씨는 山東 신씨라 불릴 만큼 일찍부터 청주에 세거한 성씨이다. 대부분 신숙주의 후손인데, 그의 아홉 아들 중 넷째 高川君 申澣(1442~1482), 다섯째 昭安公 申浚, 일곱째 靈城君 申澗(1449~1487) 등 세 지파가 대부분이다.

가장 먼저 청주에 입향한 지파는 영성군의 아들 신광윤 때부터 묘소가 청주 목정리에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신광윤과 청주의 인연은 가덕면 은행리의 忠州池氏 처가와 관련 있다. 충주지씨는 池繼漢이 청주로 입향하였고, 그의 孫壻가 신광윤이다. 실제 신도비문에 따르면 신증엄이 을사사화 이후 과거를 접고 청주 鄉庄에서 할아버지를 봉양하며 지내다가 증조부 申光漢(1484~1555)의 덕으로 蔭補로 관직에 나아갔다. 1598년 명군의 군량을 대어 통정대부에 오르고, 1601년(선조 34) 나이 80에 가선대부 첨지중추부사에 제수되었다. 둘째 아들 신식과 셋째 申涌 형제가 문과에 급제하였고, 이들 형제가 신증엄의 수연을 자주 베풀고 당시의 모습을 그리고 참석자들의 축하시를 모은 『慶壽圖帖』이 전한다.

다음으로 청주에 입향한 지파는 소안공 신준의 아들 申復淳(1464~1541)이 陽城李氏와 혼인하면서 비롯한다. 양성이씨의 아버지 李郁昌은 아들을 두지 못해 고령신씨 외손 봉사가 이어졌다. 신복순의 둘째 아들 申濯(1487~1541)이 부인 선산곽씨의 고향인 옥천 이원리로 옮겨갔다가 신탁의 현손 申櫛(1586~1641)이 광해군 때 청주로 낙향하면서

본격적으로 세거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신탁의 아들부터 줄곧 청주 백족산 인근에 묘소를 두고 있어, 임진왜란 이전부터 오늘날 세거지인 가덕면 인차리 일대에 자리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천군 신정의 후손들이 청주로 들어온 계기는 소안공파인 申稅(1596~1688)이 신정의 6세손 申守淇에게 출계하면서 비롯한다. 선대의 묘소가 대부분 옛 楊州, 오늘날 의정부에 위치하고 있지만, 신절이 부인 新平李氏의 고향인 보은 북암리로 옮겨오고 다시 손자 申澗(1643~1682) 때에 가덕면 청룡리로 옮겨왔다. 신윤의 부인 강릉김씨와 관련 있다. 오늘날 청주 가덕면 한계리는 강릉김씨의 세거지로 전한다.

오늘날 청주 가덕면과 낭성면 일대에 세거하는 고령신씨는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입향하기 시작하였다. 소안공파의 후손들은 1455년경 그려진 신숙주의 초상을 보관하고 있으며, 영성군파 후손들도 1749년(영조 25) 초상을 모사하여 목정영당에서 제향을 올리고 있다. 이들 세 지파의 후손 중 申采浩와 申圭植 형제와 같이 널리 알려진 인물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문중으로 유명하다.

청주 신중엄 신도비는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61호(1987. 03. 31)로 지정되어 있다.



<사진 1> 청주 신중엄 신도비

II. 판독문

贈左贊成申」

公神道碑銘」

有明朝鮮國 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行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申公神道碑銘并序」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 經筵監春秋館事沈喜壽 撰」

通訓大夫前行沔川郡守李山賚 書」

嘉善大夫行弘文館副提學兼 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呂爾徵 篆」

古今善言壽者莫如孔子其大旨不過曰人之生也直直者天地生生之理即所謂仁也世降風澆人傷薦瘥其或罔生幸免者固不足數有能全其直葆其真而食仁壽之報者」

乎左贊成申公迺其人也公諱仲淹字希范係出慶尙之高靈始祖成用爲麗朝軍器監其後世連有聞人至諱樞工曹參判集賢殿提學 贈領議政以翰墨名世寔生議政府」

領議政高靈府院君文忠公諱叔舟文章事業冠冕一時寔生內資寺正 贈右議政諱洞自始祖軍器監公至此九代並登文科有非他族之所可埶也寔生漢城參軍諱光潤」

以壽官躋嘉善後 贈承政院左承旨寔生諱淑 贈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即公之皇考兩世追榮皆用公賢也妣 贈貞夫人姜氏晉州著姓成歡察訪諱璜之女也以」

嘉靖壬午三月生公公夙遭愍凶四歲而失恃十六而失怙孤苦窶甚少事學子業自見乙巳世變絕意場屋且於柳相國灌爲姪婿嘗被器重至欲薦用而未果逮其罹禍之慘」

遠送于途遂挈家南歸奉養王父公清州鄉庄若將終身歲庚戌公之從祖父駱峯公知公有才局與其甥趙判書士秀交口延譽蔭補 東宮繕修監役官至於景福之灾仍董」

重新之役未訖工丁王父公憂甲寅冬也服闋叙前功卽拜軍資直長序陞禮賓主簿轉司憲府監察分臺各司姦猾不能欺辛酉出宰龍潭居五年而殿非其罪也

辛未秋復官」

通判尙州實嶺首劇邑號難爲佐而事上官待賓旅俱得歡心值有大舉籍軍騷屑萬狀公能不怵於奉使之威殄所鎮靜民蒙其惠准考乃遞歷南部宗簿寺主簿累遷尙瑞」

判官掌隸院司議陞授順天郡守戊寅夏也六期絃歌爲政慈詳民立去思之碑甲申冬以司甕判官出守遂安治如順天瓜滿入爲尙方判官明年坐微事罷辛壬兩季連遭繼」

母繼祖母之憂乙未終喪有谷山之除在郡數季因公錯被勘卽命放釋愍其老也戊戌春天兵湊集餉道不繼公出家貲以助之朝廷嘉其誠賞以通政階辛丑冬年至」

八十以僉樞特陞嘉善仍拜同知中樞盖修舉國家尙齒之曠典也諸子爲設酒饌琴歌邀會同升諸老並及一時公卿以壽之自是每春秋亦如之冠盖傾朝騷人墨客歌詠」

成卷實亂後所未有之盛事也公素患痰喘遇寒必苦酒以甲辰十二月二十七日壬申翛然而逝享年大耋有三越明季乙巳三月十六日葬于淸州治東墨井之原坐乾向巽」

從先兆也公資稟溫粹孝誠出天先參判公邁癘而歿權殯野外人皆奔避公方弱齡塊然獨守不離晝夜或有蛇虺糾結於傍側侵及肌膚而不少撓善事繼母繼祖母極其和」

愉年紀不甚遠相終始於一生備盡榮色之養篤愛繼出之叔若弟盡心撫護咸使成立人無間言奉先享祀一遵文公家禮老羸之後猶自力親行前易簣一年始不得與祭」

之日必起坐達朝壬辰之亂士大夫保存神主者盖寡而公獨盡奉先世主不以貨財自隨避匿山谷終得全還自以生於靖陵朝靖陵以下國忌齋素惟謹沒齒不變悖」

睦親黨隨力經紀遇有來訪輒令供具不問其有無凡於窮族之無家者不憚分庭而處歲月之久權如一日雖其所爲或出於常情之所不堪者而無幾微見於言色聞者皆以」

爲不可及少時嘗治近屬之喪喪家頗饒於財無子女主管公爲之照數籍記有

老婢感其辛勤豆大蠶珠數掬納諸袖中公叱以却之其持戒於苟得皆類此前後莅官爲其所」

當爲而已絕無矯情干譽之習大抵以愛養民力儲時官穀爲主應用供奉之外務加節省所至餞餘於庫粟餘於廩凡所施措舉可長用交承者稱歎而無異辭民亦戴之如父」

母尤致意於風化之本凡修葺文廟及致飾祭器一無所遺民有孝行必復其役而濟以食獎勵恐後又能達吏事曉法文凡有詞訟一經公裁判人莫敢議隣邑服其老鍊時或」

就質其難斷者焉接物謙恭不暇修爲其待卑賤之人亦必束帶而見之侍側子弟未見有跛倚偃臥之時病劇不廢盥櫛雖粥飲不冠不進惰慢不設於體蓋其習慣然也居家」

早起或覽書史抄文字下至絢繩結網之細未嘗晷刻去手晚好自警編朱子節要等書亶亶忘倦筆法精妙老而不衰酬荅書札皆出於手偏傍細畫亦能辨析屬續之朝精神」

言語猶不少差可見所養之有素蓋其平日雖不專力於學問而忠信內植不事表襮立心制行無愧古人與人語恐傷之而時疑疑有立豈非天質之美有以致之也常戒子弟」

曰世之名士多因交遊不慎以致禍敗遂名趨利者鮮不及矣庭訓如此宜其諸子之端方自守甞出流輩也公配柳氏文化望族衿川縣監 贈左贊成諱霏之曾孫司憲府掌」

令 贈領議政諱廷秀之孫司禦寺正滄之女母曰韓山李氏成均館司成穀之出也名門毓秀□□咸備與公同季生日月後於公琴瑟二紀閨門肅雍雖當小官薄俸亦能料」

理得宜蘋蘩竭誠饗飧致潔不使公知其艱窘接人以款與物無忤親戚服其賢婢僕懷其惠□□甲子八月三十日終於龍潭縣得年僅四十三未及見家道之稍成子孫之成」

長顯榮可謂不幸之甚而後四十二年與公同槨而窆以二子並貴叅錄宣武原從勳故累 贈公至左贊成兼判義禁及夫人貞敬之封嗚呼休哉凡生三男二女男長曰承議」

郎渚不壽次曰嘉義忠清道觀察使湜季曰通政承政院左承旨渚皆文科女長適李瑾次適金廷俊皆司果承議郚迪順副尉金廷俊女生二男得潛得海繼室縣監具審言女」

生一男得灝監司娶縣監盧塏女生二男四女男長得滋廣興倉主簿次得淵生員女長適生員金德民次適禹弘業次適姜碩期次適進士李晋英承旨娶吏曹判書李文馨女」

生三男二女男長得沛司憲府監察次得游進士次得治女適進士崔始量次幼繼室寧原君洪可臣女李瑾一子德英金廷俊一子至善一女適宣傳官韓謚得潛郚具大仁女」

生二女幼得海郚朴社女生一子一女以得潛無子早逝命得海爲承孫得灝娶通政愼好學女得滋初娶蘇純福女再郚都事柳止敬女得淵娶右贊成鄭昌衍女生一女幼金」

德民生一女禹弘業生男女各一姜碩期李晋英皆生一男幼得沛郚宗室海豐君者女生一男二女幼得游初郚正郎安應元女生一男再娶郡守沈闕女李德英初郚安慶國」

女再娶金應礪女生二女幼公又有側室子隱登武科濟物萬戶無子女其妹二人一嫁文科府使尹勉一嫁李仁弼皆有子女監司亦生妾女二人何其子孫之蕃衍也監司君」

與余有四十季之舊且以余屢忝壽席仰觀大君子之容儀迺具錄公之族出行治歷官壽季來問銘不已不敢以鹵莽辭遂爲之銘曰喬木舊家與 國長存 靈城之申文子」

文孫 巖軒保閑相繼炳蔚 參軍以後名位稍屈 篤生神人在嘉靖初 孝敬祥順令聞令譽 遭世百塞擺奪科場 才必見用尙來簪裳 官有大小身無寵辱 所在」

恪愼若臨淵谷 歷典州郡首尾幾年 治以和簡民以寧便 口碑而思終乃勒珉 漢廷循吏亦鮮其倫 達尊有二曰齒與德 渙 恩北闕瞻星南極 金章赤紱宰相」

之徒 鶴髮鳩杖山澤之臞 勝日開筵孤卿畢會 捧觴而壽和氣謇謇 膝下雙璧行符萊子 共着斑斕舞以爲戲 志在養志不但口體 事亡事存盡誠

盡禮 鬼神」

福謙 朝廷優老 隱卒 賜祭詞極稱道 昔公先世顯以文章 今公之顯
亶由賢良 貞吉之頤哀榮終始 玄宅于斯餘慶千祀,
萬曆己酉撰越四十七季乙未建」

III. 번역문

증(贈) 좌찬성(左贊成) 신공(申公) 신도비명(神道碑銘).

유명조선국(有明朝鮮國) 증승록대부의정부좌찬성겸판의금부사(贈崇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 행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行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신공(申公) 신도비명(神道碑銘)과 아울러 서문을 짓다.

대방보국승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우의정겸영경연감춘추관사(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監春秋館事) 심희수(沈喜壽, 1548~1622) 짓고, 통훈대부(通訓大夫) 전행면천군수(前行沔川郡守) 이산퇴(李山賚, 1603~?) 쓰고, 가선대부(嘉善大夫) 행홍문관부제학겸영연참찬관춘추관수관관인(行弘文館副提學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 여이징(呂爾徵, 1588~1656) 전(篆) 하다.

예나 지금이나 목숨[壽]에 대한 좋은 말씀은 공자 같은 분이 없으니, 그 큰 뜻으로 사람의 삶은 직(直)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직이라는 것은 천지(天地)가 만들어지는 이치이니 곧 이른바 인(仁)이다. 세대가 내려오며 풍속이 나빠져 사람이 상하고 재앙이 거듭되니 그중 혹 요행히 죽음을 면한 자라도 진실로 운수라 하기에는 부족하다. 그 직과 진리를 온전히 지켜 천수를 다한 보답을 잡수신 분이 있으니 좌찬성(左贊成) 신공(申公)이 이내 그 사람이다.

공의 휘(諱)는 중엄(仲淹)이며, 자(字)는 희범(希范)이다. 그 세계가 경상도 고령(高靈)에서 갈라져 나왔으니, 시조는 성용(成用)으로 고려 때 군기감(軍器監)이었다. 그 후세가 연이어 이름난 사람이 있었다. 휘장(樞)에 이르러 공조참판(工曹參判)과 집현전제학(集賢殿提學)을 지냈

으며 영의정에 증직되었고, 문장으로 세상에 이름났다. 이분이 의정부 영의정(議政府領議政) 고령부원군(高靈府院君) 문충공(文忠公) 휘 숙주(叔舟)를 낳으니, 문장과 사업으로 한 시대의 으뜸이었다. 이분이 내자시정(內資寺正) 증우의정(贈右議政) 휘 형(炯)을 낳으니, 시조 군기감공(軍器監公)으로부터 이때까지 9대가 아울러 문과에 급제하였으니 다른 가문이 성함과 비할 바가 아니다. 이분이 한성참군(漢城參軍) 휘 광운(光胤)을 낳으니, 수직(壽職)으로 벼슬이 가선대부에 이르렀고 후에 승정원좌승지(承政院左承旨)에 증직되었다. 이분이 휘 서(澂)를 낳았고, 이조참판(史曹參判) 겸동지의금부사(兼同知義禁府事)이 증직되었으니, 바로 공의 아버지이다. 두 대에 걸쳐 영예가 뒤따랐으니 모두 공이 귀하게 된 까닭이다. 어머니는 증정부인(贈貞夫人) 강씨(姜氏)로 진주(晉州)의 이름난 성씨이며, 성환도 찰방 휘 황(璜)의 딸이다.

가정(嘉靖) 임오년(壬午年, 1522, 중종 17) 3월 공을 낳았다. 공은 일찍부터 훗날 일을 겪어 4세에 어머니를 여의고, 16세에 또 아버지를 여의니 외롭고 어려움이 매우 심하였다. 어려서부터 과거에 힘썼으나 을사년(乙巳年, 1545)의 사화를 겪은 뒤로는 과거에 뜻을 끊었다. 또 상국(相國) 유관(柳灌)이 조카 사위로 삼았는데, 일찍이 크게 될 인물로 뽑아 천거하여 쓰고자 하였으나 이루지 못한 데다 사화의 참화를 당함에 미처 먼 곳으로 유배를 당했다.

마침내 가족을 데리고 남쪽으로 돌아와 청주 향장(鄉庄)에서 할아버지를 봉양하며 일생을 마치고자 하였다. 경술년(庚戌年, 1550, 명종 5) 공의 종조부 낙봉공(駱峯公)이 공이 재주와 국량이 있음을 알고 그의 사위 판서 조사수(趙士秀)와 입을 모아 칭찬하며 음보(蔭補)로 동궁(東宮) 선수감역관(繕修監役官)으로 삼았다. 경복궁에 화재가 나자 이에 새로이 증건의 역할을 맡았으나 일이 마치기 전에 할아버지의 상을 당했으니 갑인년(甲寅年, 1554, 명종 9) 겨울이다.

상례를 마치고 이전의 공로로 곧 군자감(軍資監) 직장(直長)에 제수되었다가 햇수가 차서 예빈시(禮賓寺) 주부(主簿)에 올랐고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로 옮겼다. 각사(各司)를 검열하니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들이 감히 속이지 못했다.

신유년(辛酉年, 1561) 외직으로 나아가 용담현(龍潭縣)을 다스린 지 5년이었으나 가장 낮은 성적을 받은 것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신미년(辛未年, 1571, 선조 4) 가을 다시 상주(尙州) 관관의 벼슬을 받았다. 고을은 실로 영남의 우두머리격으로 사무가 복잡하기로 알려졌으니 상관을 보좌하고 받드는 일과 오가는 관리들을 대접하는 일로 환심을 얻기가 어려웠다. 마침 군적(軍籍)을 다루는 일로 소요가 만 가지로 크게 일어나니 공이 파견된 관리의 위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윽고 진정시키니 백성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갔다. 인사고과에 따라 이에 체직되어 남부(南部)와 종부시(宗簿寺) 주부(主簿)를 지내고 누차 상서원(尙瑞院) 관관과 장예원(掌隸院) 사의(司議)로 옮기고, 승진하여 순천군수(順天郡守)에 제수되었으니 무인년(戊寅年, 1578) 여름이다. 6년 동안 교화를 베풀어 자상한 마음으로 다스리니 백성들이 거사비(去思碑)를 세웠다.

갑신년(甲申年, 1584) 겨울 사옹원(司饗院) 관관(判官)으로 있다가 수안(遂安) 수령으로 나아가 다스리는 것이 순천과 같았다. 임기가 차서 들어와 상의원(尙衣院) 관관이 되었고, 이듬해 하찮은 일에 연좌되어 파직되었다. 신묘년(辛卯年, 1591)과 임진년(壬辰年) 이태 동안 계모와 계조모의 상을 치렀다. 을미년(乙未年, 1595) 탈상한 후 곡산군수(谷山郡守)에 제수되었다. 군에 머무르길 수년, 공무에 착오가 있어 피감(被勘) 되었으나 곧 석방하라는 명이 있었으니 공이 나이 든 것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무술년(戊戌年, 1598) 봄 명나라 군대를 먹일 방도가 막히자 공이 가산을 베풀어 도우니 조정에서 그 정성을 가상히 여겨 통정대부의 품계를 상으로 주었다. 신축년(辛丑年, 1601) 겨울 나이가 80에 이르니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서 특별히 가선대부(嘉善大夫)로 높여 이어 동지중추부사의 벼슬을 내렸다. 대개 나라에서 노인을 공경하여 은전을 베푸는 것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 아들들이 술과 음식, 음악을 베풀어 공과 같이 오른 여러 노인들을 불러 모았으니 한때 이름

높은 고관대작이 그 수연(壽筵)을 즐겼다. 이로부터 매년 봄, 가을 또한 이같이 하니 벼슬아치와 이름난 시인 묵객이 시를 지어 읊고 책으로 엮으니 실로 난후 이런 성대한 일이 없었다.

공은 본디 기침 천식이 있어 날이 추우면 반드시 고생하였는데, 이 내 갑진년(甲辰年, 1604) 12월 27일 임신(壬申)에 홀연히 세상을 떠나니 향년 83세였다. 이듬해 기사년(己巳年, 1605) 3월 16일 청주 고을 동쪽 목정(墨井)의 남동향 선영 언덕에 장사지냈다.

공은 자질이 온순하고 효성이 지극하여 앞서 참판공이 전염병으로 죽자 야외에 시신을 안치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 도망하였으니 공이 바야흐로 약관의 나이에 태연히 홀로 지키며 밤낮으로 떠나지 않고 흑 뱀과 지네가 그 옆에 꼬리를 틀고 몸을 감싸도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계모와 계조모를 잘 모시고 온화함을 지극히 하여 나이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서로 일생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극진히 밝은 낮으로 봉양하였다. 서출 삼촌들을 도탑게 사랑하고, 서제(庶弟)도 진심으로 돌보아 모두 성장시키니 탄소리하는 이가 없었다. 선조를 받들고 제사를 지내는 일은 한가지로 주자가례를 따랐고, 나이 들어 힘이 없어진 후에도 오히려 스스로 친히 제사를 지냈다.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비로소 제사를 지낼 수 없게 되자 제사 지내는 날 반드시 예의를 지켜 일어나 앉아 아침을 맞았다. 임진년의 난리에 사대부가 신주를 보존하는 이가 거의 없었는데 공은 홀로 선대의 신주를 극진히 받들 수 있었으니 재물로서가 아니라 산골로 피난할 때도 스스로 가지고 가니 끝내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었다. 정릉조(靖陵朝, 중종)에 태어나 정릉이하 국가 제사 때는 오직 온몸을 바쳐 삼가길 변치 않았다. 친척에게 온순하고 공손했으며 힘을 다해 보살피고, 찾아오는 이가 있으면 그 유무(有無)를 묻지 않고 접대하였다. 궁색한 가족이 집이 없으면 기탄 없이 터를 나누어 거처하게 하였으니 오랜 세월 기뻐하기를 하루처럼 하였다. 비록 그 행한 바가 상정(常情)에서 벗어나 감당하기 어려운 자라도 조금도 말과 안색을 보이지 않았으니 듣는 이들이 모두 미칠 바가 아니라 하였다.

어려서 일찍이 근친의 초상을 치른 적이 있는데, 상가가 자못 재물이 풍요로워도 주관할 자녀가 없어 공이 수효를 맞춰 문서를 기록하였다. 늙은 노비가 공이 힘써 일하는 것에 감복하여 콩 크기의 진주 여러 개를 움켜쥐어 공의 소매에 넣었다. 공이 꾸짖고 그것을 물리치니 쉽게 얻는 것을 경계함이 모두 이와 같았다. 전후 벼슬살이도 마땅히 할 일일 뿐이었으니 절대 거짓으로 명예를 구하는 법이 없었다. 대저 백성을 힘써 사랑하고 진휼하고, 관곡을 모으기를 위주로 하였다. 받들어 이바지할 용도 외의 일에는 더욱 절약하여 이르는 곳마다 곳간에 예물이 남아돌고 곳집마다 곡식이 여유로웠다. 무릇 배풀어 조치하는데 오래도록 쓸 수가 있어서 교체하여 오는 자마다 칭찬하고 다른 말이 없었다. 백성들도 또한 부모와 같이 대하니 더욱 풍속을 교화하는 본분으로 정성을 다하였다. 무릇 문묘(文廟)를 고치고 제기를 갖추 때도 한 가지도 남기는 것이 없었다. 백성 중에 효행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역(役)을 면해 주었고, 음식으로 구제하여 장려하여 뒷날을 경계하였다. 또 관리 사무에 능숙하고 법문에 밝았는데, 소송이 있어 공이 한차례 재판하면 사람들이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이웃 고을도 그 노련함에 감복하여 때로 혹 판단하기 어려운 것을 질정[就實]하였다.

겸손하고 공손하게 남을 대하고 깨우치는데 겨를이 없었다. 비천한 사람을 대할 때도 반드시 관을 쓰고 띠를 매고 만났고, 옆에서 모시는 자제들도 한 다리에 의지하여 기대거나 드러눕는 때를 본 적이 없었다. 병이 심할 때도 세수와 빗질을 그만 두지 않았다. 비록 죽을 먹을 때도 의관을 갖추지 않고는 태만하게 나아가지 않고 몸을 두지 않았으니 대개 관습이 그러하다. 집에 있을 때도 일찍 일어나 경서와 사초 문자를 읽고, 새끼를 꼬고 그물을 엮는 하찮은 일에 이르기까지 일찍이 손을 놀리는 일이 없었다. 만년에는 <자경편>과 <자주절요> 등의 서책을 즐겨 읽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태하지 않았다. 필법이 정묘하여 나이 들어서도 쇠하지 않았다. 서찰의 답장도 모두 손수 짓고 글자의 좌우 작은 획도 역시 능히 판별하고 분석하였다. 임종하던 날 아

침 정신과 말씀이 조금도 차이가 없었으니 가히 평소 소양한 바를 알 수 있다. 대개 평일에 학문에 전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忠)과 신(信)이 안에서 자라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마음을 굳게 세우고 행동을 자제하였으니 옛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었고, 다른 사람과 말할 때도 상처를 줄까 조심하였다. 때로 의연히 우뚝 섰으니 어찌 천질(天質)의 아름다움이 있어 그것에 이른 것이 아니겠는가. 항상 자제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세상의 이름난 선비들이 서로 교류할 때 삼가 하지 않음으로 인해 재앙과 실패에 이르고, 명예와 이익을 쫓는 자들도 거기에 미치지 않는 이가 드물다고 하였다. 집안의 가르침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그 자제들이 단정하고 스스로 지켜 동료들과는 차이가 있었다.

공의 부인 유씨(柳氏)는 문화(文化)의 망족(望族)으로 금천현감(衿川縣監) 증좌찬성(贈左贊成) 휘 주(奎)의 증손이고, 사헌부 장령으로 영의정에 증직된 정수(廷秀)의 손녀이고, 사도시정(司隲寺正) 엄(浣)의 딸이다. 어머니는 한산이씨로 성균관 사성(司成) 각(穀)의 후손이다. 빼어난 명문 출신으로 부덕을 함께 갖추었다. 공과 더불어 같은 해에 태어났고, 일월(日月)은 공보다 뒤다. 금슬 좋은 24년 동안 집안이 엄숙하고 화합하였고, 비록 낮은 벼슬로 녹봉이 부족했어도 능히 처리가 적절하였다. 변변치 못한 제수라도 정성을 다하였고, 아침 저녁 정결하였으니 공이 그 어렵고 곤궁함을 알지 못하게 하였다. 다른 이를 대할 때는 성의를 다하고 누구에게나 거슬림이 없었다. 친척들도 그 어짐에 감복하고 비복들도 은혜롭게 여겼다.

갑자년(甲子年, 1564) 8월 30일 용담현에서 세상을 떠나니 나이가 겨우 43세였다. 가정의 형편이 점점 나아지고 자손들이 성장하여 현달하는 것을 보지 못했으니 가히 불행이 심했다고 할 수 있다. 42년이 지난 후 공과 같이 묻혔다. 두 아들이 아울러 귀하게 되고 선무원종(宣武原從)에 녹훈되면서 여러 번 증직되어 공은 좌찬성 겸 판의금부사에 이르고 부인은 정경부인에 올랐다.

아, 아름답도다. 무릇 3남 2녀를 낳으니 장남은 승의랑(承議郎) 저

(渚)이나 수명을 다하지 못했다. 차남은 가의대부(嘉義大夫)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 식(湜)이고, 막내는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설(潑)이니 모두 문과에 급제했다. 장녀는 이근(李瑾)에게 시집갔고, 다음은 김정준(金廷俊)에게 시집갔는데 모두 사과(司果)이다.

승의랑은 적순부위(迪順副尉) 김정준(金廷俊)의 딸에게 장가들어 두 아들 득준(得濬)과 득해(得海)를 낳았고, 계실(繼室)은 현감 구심언(具審言)의 딸인데 아들 하나를 낳으니 득호(得灝)이다.

감사는 현감 노개(盧塏)의 딸에게 장가들어 2남 4녀를 낳으니 장남은 득자(得滋)요 광흥창(廣興倉) 주부(主簿)이다. 다음 득연(得淵)은 생원이다. 큰딸은 생원 김덕민(金德民)에게 시집갔고, 다음은 우홍업(禹弘業), 다음은 강석기(姜碩期), 다음은 진사 이진영(李晋英)에게 시집갔다.

승지는 이조판서 이문형(李文馨)의 딸에게 장가들어 3남 2녀를 낳았다. 장남 득패(得沛)는 사헌부 감찰이고, 다음 득유(得游)는 진사이며, 다음은 득치(得治)이다. 딸은 진사 최시량(崔始量)에게 시집갔고, 다음은 어리다. 계실은 영원군(寧原君) 홍가신(洪可臣)의 딸이다.

이근의 아들 하나는 덕영(德英)이고, 김정준의 아들 하나는 지선(至善), 딸 하나는 선진관 한밀(韓謐)에게 시집갔다.

득준은 구대인(具大仁)의 딸에게 장가들어 두 딸을 낳았는데 어리다. 득해는 박지(朴祉)의 딸에게 장가들어 1남 1녀를 낳았고, 득준이 아들 없이 일찍 죽어 득해로 하여금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득호는 통정대부 신호학(愼好學)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득자의 첫 부인은 소순복(蘇純福)의 딸이고, 재취는 도사(都事) 유지경(柳止敬)의 딸이다. 득연은 우찬성 정창연(鄭昌衍)의 딸에게 장가들어 딸 하나를 낳으니 아직 어리다. 김덕민은 딸 하나를 낳았고, 우홍업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다. 강석기, 이진영은 모두 아들 하나를 낳았으나 어리다.

득패는 종실 해풍군(海豊君) 기(耆)의 딸에게 장가들어 1남 2녀를 낳았으나 아직 어리다. 득유는 처음 정랑 안응원(安應元)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 하나를 낳았고, 다시 군수 심곤(沈闔)의 딸에게 장가 들었다.

이덕영은 처음 안경국(安慶國)의 딸에게 장가들었다가 다시 김응려(金應礪)의 딸에게 장가들어 두 딸을 낳았으나 아직 어리다.

공은 또한 측실에게서 아들 은(隱)이 있어, 무과에 급제하여 제물포(濟物浦) 만호(萬戶)를 지냈는데 자녀가 없다. 그 누이는 두 명으로 하나는 문과에 급제하여 부사를 지낸 윤면(尹勉)에게 시집갔고, 하나는 이인필(李仁弼)에게 시집갔는데 모두 자녀가 있다. 감사 역시 첩이 낳은 두 딸이 있으니, 어찌 자손이 번성하지 않겠는가.

감사군(監司君)은 나와 더불어 40년 친구이며, 또한 내가 여러 번 수연(壽筵)에 참여하여 대군자(大君子)의 모습을 우러러 뵈는 적이 있다. 이에 공의 가계와 행적, 관력, 수년(壽年)을 갖추어 기록하여 내게 와서 명(銘)을 물으니, 감히 거칠고 서툴다 사양하지 못하고 마침내 그를 위해 명을 짓는다.

교목구가(喬木舊家)는 나라와 운명을 같이 하니
 영성(靈城) 신씨의 문과 급제 여러 자손은
 암헌(巖軒)과 보한재(保閑齋) 서로 이어 찬란하다
 참군(參軍) 이후 명성과 위상이 조금 처졌으나
 가정(嘉靖) 초에 서서히 드러난 신인(神人)이 있어라
 효도와 공경으로 상서롭고 온순하니 듣게 하여 명예롭게 하더니
 넘을 수 없는 세상을 만나 과장을 뛰쳐나오더라
 근본은 반드시 쓰임이 있으니 갑자기 벼슬이 따라오고
 벼슬이 높고 낮으나 총애와 모욕이 없더라
 나가는 곳마다 삼가고 삼가 못과 골짜기에 임한 듯하니
 여러 고을 두루 다녀 앞뒤 몇 년인가.
 은화하고 간편하게 다스려 백성들이 편안하니
 칭송하는 뜻 끝내 비석에 새기네
 한나라 뛰어난 관리라도 비교하기 드물더니

세상에서 존귀하게 여기는 둘이 있으니 장수와 덕이더라
임금의 은혜 북관(北關)에 흠어지고 남극의 별로 빛나니
금장적불(金章赤紱) 재상의 무리요
흰머리 임금 내린 지팡이는 산림 속 신선이라
좋은 날 수연(壽筵) 열어 공경대부 모두 모여
술잔 들어 장수를 축하하길 화기애애하네
쌍벽(雙壁) 이룬 두 아들 노래자(老萊子) 따라 하니
생동옷 차려 입고 희롱하듯 춤을 추네
뜻은 양지(養志)의 효에 있고 부단히 봉양하니
죽어 섬기나 살아 섬기나 정성과 예를 다하네
귀신은 겸손함에 복을 주고 조정은 노인을 우대하니
죽은 신하 제사를 내리니 글귀마다 칭찬 일색
옛 공의 선대 문장으로 이름났고
지금 공은 현량(賢良)으로 드러났다
이괘(頤卦)의 정길(貞吉)은 슬픔과 영욕의 시작과 끝이라
이곳 유택(幽宅) 자손에게 경사 이어져 천추에 길이길이
만력기유(萬曆己酉, 1609)에 지은 지 47년이 지난 을미(乙未,
1655)에 세우다.

IV. 맺음말

신중엄 신도비는 청주에 세거하는 고령신씨의 대표적인 유물이다. 청주의 고령신씨는 신숙주의 후손들이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입향하기 시작하였다. 청주는 훈척을 대표하는 신숙주가 靖難功臣 2등(1453), 佐翼功臣 1등(1455), 翊戴功臣 1등(1468), 佐理功臣 1등(1471) 등 거듭 공신에 오르며 사패지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입향 배경을 살펴보면 처향과 외향으로 알려져 있다. 청주에 세거하는 고령신씨는 신숙주의 초상을 봉안한 영당을 세워 세계를 밝히고 있다.

가장 먼저 청주에 입향한 인물은 영성군 신행의 아들 신헌윤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손자 신중엄은 음보로 여러 벼슬에 나아갔으며, 수직으로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에 올랐다. 또한 임진왜란 때 명군의 군량을 조달하여 벼슬이 가자된 바 있다. 특히 신식과 신용, 두 아들이 현달하여 승록대부 의정부좌찬성에 증직되었다. 수령으로서의 치적이거나 군량 조달 등 신중엄의 활동도 주목되지만 아들 형제의 위상이 신도비 건립으로 이어진 경우라 할 수 있다. 더욱이 4차례에 걸친 경수 연첩이 전하고 있어, 신식·신용과의 유대에 따른 당대 상당수 인물들이 참여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수 있다.

따라서 신중엄 신도비는 청주지역에서 유력 성씨로 자리 잡은 고령 신씨의 위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귀중한 자산이다. 또한 신도비는 양란 직후 급격하게 증가한 사례와 비교하여 비교적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형식으로 의미가 있다.

[투고일 : 2020.10.23, 게재확정일 : 2020.11.30.]

【참고문헌】

원군지편찬위원회, 2006, 『清原郡誌』 하(下), 286~295쪽.

청원향토문화연구회편, 2005, 『清原郡金石文集』 제2집, 청원군·청원문화원, 79~89쪽.

충청북도, 1982, 『文化財誌』, 713~715쪽.